

‘단일종목 ETF’ 국내상장 예고 증권사, 퇴직연금 시장 노린다

미래에셋 등 4개사 이달 출시
주식·채권 섞은 ‘혼합형 ETF’
퇴직연금 포트폴리오 다양화
파생상품과 혼합 불가형 ‘유의’

삼성전자, 테슬라 등 한 종목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단일종목 상장지수펀드(ETF)’가 오는 11월 국내 증시에 동시 상장한다. 퇴직연금 계좌에 해당 ETF를 편입할 수 있어 연금계좌 내 주식 비중을 간접적으로 늘릴 수 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 미래에셋·삼성·한국투자·한화자산운용 등 4개사가 단일종목 ETF 출시를 앞두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테슬라, 삼성자산운용은 삼성전자,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엔비디아, 한화자산운용은 애플을 각각 편입했다.

이어 KB자산운용은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SDI 등 삼성 주요 계열사를, 신한자산운용은 나스닥 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 상위 5개 종목을 담은 소수종목 ETF도 내놓을 예정이다.

단일종목 ETF는 주식과 채권을 섞은 혼합형 ETF다. 기존에는 혼합형 ETF의 경우 주식과 채권을 각각 10종 이상 담아야 했으나, 지난 8월 자본시

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통해 자산유형별 구분 없이 총 10종 이상으로 변경됐다.

송영훈 한국거래소 본부장보는 지난 10월 3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22 글로벌 ETP 컨퍼런스 서울’에서 “주식 1종목에 채권 9종목과 같은 형태의 믹스된 상품도 가능하게 됐다”며 “채권 9종목을 편입하고 기본적 수익률을 확보한 다음 삼성전자나 테슬라 등의 종목을 섞으면 초과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퇴직연금 계좌에서 투자가 가능해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계좌는 주식 등 위험자산 70%, 안전자산 30%로 투자 한도가 규정돼 있다. 안전자산 30%를 단일종목 ETF로 구성할 경우 연금계좌 내 주식 비중이 높아져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해진다.

배정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국내 혼합형 지수 요건이 완화된 것은 퇴직연금 등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단일 종목 ETF의 상장은 투자자로 하여금 새로운 전략의 도구를 마련해줌으로써 시장이 또 한 번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줄 것”이라

고 전망했다.

단, 주가 상승 시 해당 종목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낮을 수 있다. ETF의 장점으로 꼽히는 분산투자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또 미국의 단일종목 ETF와 성격이 다르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파생상품과는 혼합이 불가능해 예를 들어 ‘삼성전자 레버리지(또는 인버스) ETF’는 불가능하다.

단일종목 ETF는 지난 7월 미국 증시에 처음 등장했다. 실제로 테슬라를 1.5배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테슬라 볼 1.5X(TSLA·DIREXION DAILY TSLA BULL 1.5X SHARES)’는 지난 10월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의 순매수 7위 종목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김해인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 단일종목 ETF는 레버리지 혹은 인버스 상품으로, 이번 개정으로는 ‘덜 분산’해도 되는 방식이 가능해진 것”이라며 “국내에 아직 주식 한 종목의 ETF 내 비중 상한이 30%로 제한되어 있고, 미국처럼 ‘주식 1종목 100% + 스와프(Swap)’ 같은 파생상품 조합으로는 혼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SK에코플랜트,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참가

SK에코플랜트가 국내 최대 에너지 전시회에서 ‘순환경제 디자이너’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SK에코플랜트는 오는 4일까지 일산 컨텍스에서 열리는 ‘2022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에 참가해 탄소 제로, 폐기물 제로가 실현된 순환경제 모델을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은 올해로 41회째를 맞는 국내 최대 규모의 에너지 전시회다.

SK에코플랜트가 국내 최대 에너지 전시회에서 ‘순환경제 디자이너’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SK에코플랜트는 오는 4일까지 일산 컨텍스에서 열리는 ‘2022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에 참가해 탄소 제로, 폐기물 제로가 실현된 순환경제 모델을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은 올해로 41회째를 맞는 국내 최대 규모의 에너지 전시회다.

/SK에코플랜트

‘천안 롯데캐슬 더 두정’ 본격 분양

롯데건설

전용면적 59~119㎡, 584가구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 제공

롯데건설이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일원에 들어서는 ‘천안 롯데캐슬 더 두정’ 59~119㎡, 584가구의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전용 면적별로 ▲59㎡ 44가구 ▲84㎡A 320가구 ▲84㎡B 78가구 ▲84㎡C 112가구 ▲84㎡D 26가구 ▲119㎡ 4가구 등이다. 이 단지는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수요자들의 대출이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천안 롯데캐슬 더 두정’은 단지 바로 앞에 천안희망초를 비롯해 자사고인 북일고, 북일여고와 천안북중 등 학교가 많다. 두정동, 신부동 학원가도 있다.

교통여건으로 수도권 지하철 1호선 두정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 천안고속버스터미널과 천안종합버스터미널, KTX 천안아산역도 인근에 위치해 있다. 또 경부고속도로 천안IC, 1번 국도, 천안대로 등이 인접해 천안 전지



‘천안 롯데캐슬 더 두정’ 조감도.

역은 물론 외곽지역으로 이동이 수월하다.

단지 전 세대는 남향으로 배치했으며, 거실에는 일반적인 철제 난간이 아닌 고급아파트에 주로 시공되며 시야 간섭이 없는 유리 난간 일체형의 조망형 이중창을 시공했다. 84㎡C타입을 제외한 전 타입은 조망에 유리한 4베이(Bay) 판상형 구조로 설계했다.

청약일정은 오는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 청약, 9일 2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견본주택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마련된다.

/이규성 기자 peace@

웹드라마에 핫바까지… 증권사 ‘MZ 마케팅’

딱딱한 이미지 탈피위한 이색 시도
미래에셋 ‘미래의회사 시즌2’ 공개
SK증권, CJ와 손잡고 핫바 선보여

국내 증시 부진에도 증권사들이 MZ 세대를 겨냥한 마케팅을 선보이고 있다. 기존의 딱딱한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유통업계와의 협업 상품을 선보이거나, 웹드라마를 출시하는 등 이색 마케팅을 이어가고 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웹드라마 ‘미래의 회사 시즌2’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총 5부작으로 제작된 웹드라마로 매주 화요일마다 순차적으로 공개하며, 현재 2편까지 공개됐다.

증권사의 업무뿐 아니라 투자자라면 겪을 법한 이야기를 통해 쉽게 풀어내 많은 유행어만 시즌2까지 제작해 공개했다. 앞서 공개한 시즌1(애널리스트의 세계)은 누적조회수 62만6000회를 기록하며 증권사 제작 웹드라마 중에서는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특히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해외에서도 반응이 뜨거웠다. 이번 시즌2에서는 WM(고객자산관리)로 변신한 주인공을 통해 관련 에피소드를 선보일 예정이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 본부장은 “현재 다양한 변수들로 인해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주인공 미래가 고객의 성공적인 자산운용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담았다”



미래에셋증권이 제작한 웹드라마 ‘미래의 회사 시즌2’.

며 “어려운 시장환경에서도 WM영업직원이 고객동행을 실천해 가는 이야기”라고 전했다.

증권사는 MZ세대의 주요 미디어 소비처에서 관련 콘텐츠를 선보이며 접점을 늘려가는 추세다.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은 구독자 10만명 이상을 확보하고서 자체 콘텐츠를 업로드 하고 있다. 또한 유진투자증권은 지난해 네이버 웹툰 플랫폼에서 웹툰작가 ‘자까’와 함께 ‘신입 일기’라는 브랜드 웹툰을 선보이기도 했다.

더불어 증권사가 유통업계와 손잡고 협업 상품도 출시하고 있다. SK증권은 최근 CJ제일제당 맥스봉 브랜드와 손잡고 ‘맥스양봉’ 핫바를 출시했다. 주식 상승장인 불장이 연상되는 불뚫구이맛



SK증권이 CJ제일제당 맥스봉 브랜드와 출시한 ‘맥스양봉’ 핫바.

/SK증권

으로 주가 상승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주식 차트의 양봉과 맥스봉을 합성해 만들었다. 양봉은 주식 장가가 시가보다 상승할 경우 표시되는 붉은색 막대를 뜻한다. 출시를 기념해 제품 구입시 숨겨진 QR코드를 통해 국내 주식, CU 편의점 상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랜덤박스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SK증권 관계자는 “고물가, 고금리 경제 상황으로 불안정한 주식 시장에서 자신이 보유한 주식만큼은 상승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잠시라도 고객에게 웃음과 힘이 되고자 윌트(Wit·익살) 있는 ‘아재력’(아저씨처럼 행동하는 정도)을 동원해 합작한 제품”이며 “고객들이 재미있고 흥미롭게 투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마케팅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미래 잠재고객인 MZ세대 공략을 위해 디지털플랫폼 등을 활용한 맞춤형 마케팅을 확대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영석 기자 ysl@

“ETF 매매 시 과세정보 미리 확인하세요”

KB증권, 마블·헤이بل 화면 개선
사전 예측으로 절세투자 기대감

KB증권이 상장지수펀드(ETF) 매매 시 과세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MTS ‘M-able(마블)’, HTS ‘H-able(헤이블)’, 홈페이지의 현재가 및 매매주문 화면을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ETF시장 규모는 지난 9월 말 약 75조7000억원으로 매년 시장규모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투자 주체별로는 개인이 약 44% 정도로 개인투자자의 ETF 투자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이 ETF 매매 시 금융소득이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ETF 매도 후 금융소득 발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금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KB증권 절세연구소는 고객들이 ETF 매매 시 과세정보를 사전

에 확인하여 절세 예측에 도움을 드리 고자 화면을 개선했다.

이번 화면 개선으로 고객들은 ETF 종목명 아래에 위치한 과세 또는 비과세 여부를 확인하고 상세정보를 클릭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한 후 매매할 수 있다. 매매차익이 과세되는 ETF의 경우,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고 어떻게 소득을 산출하는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사전에 예측 가능한 절세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민항 KB증권 자산관리솔루션센터장은 “ETF 매매 시 즉시성있는 과세 정보 제공으로 미래 세금을 예측 가능하게 하여 고객들의 성공적인 자산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KB증권의 세심한 절세코칭은 꾸준히 진행 중이니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상품은 투자 결과 및 환율 변동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박미경 기자